"**꽃과 나무의 노래 - 시 인문학**"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느냐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크고 작은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따가운 햇살, 거친 바람,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향기를 뿜어내고 그늘을 드리우는 것을, 꽃과 나무에게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시를 읽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슬픔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가. 개 요

1) 대 상 : 성인
2) 기 간 : **4.17.~6.26. (매주 수요일 14:00~16:00) [10회]**
3) 장 소 : 지하 문화강좌실
4) 인 원 : 12명
5) 강 사 : 이 승 옥

나. 강 의

차시	일자	강의내용	비고
1	4.17.	들어가면서 / 나를 소개합니다 / 시(詩)란 무엇인가 꽃, 동백꽃에 관한 詩 / 흔들리며 피는 꽃-도종환, 선운사 동백-김용택 외	
2	4.24.	시낭송의 역사 / 산수유, 매화, 목련꽃을 소재로 한 詩 / 산수유나무의 농사-문태준 외	
3	5.1.	진달래, 복사꽃, 살구꽃을 소재로 한 詩 / 진달래꽃-김소월 외	
4	5.8.	모란, 제비꽃, 패랭이꽃을 소재로 한 詩 / 모란의 연-류시화 외	
5	5.22.	연꽃, 등꽃, 도라지꽃, 담쟁이, 민들레꽃을 소재로 한 詩 /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서정주 외	
6	5.29.	양귀비꽃, 능소화, 치자꽃을 소재로 한 詩 / 양귀비꽃-오세영 외	
7	6.5.	찔레꽃, 해당화, 이팝나무를 소재로 한 詩 / 찔레꽃-이근모 외	
8	6.12.	대나무를 소재로 한 詩 / 어느 대나무의 고백-복효근 외	
9	6.19.	열매에 관한 詩 / 석류-이가림 외	
1 0	6.26.	나무에 관한 詩 / 자작나무 숲을 가던 소년을 위한 시-신석정 외 나가면서/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시 한 편 낭독 혹은 낭송	
재료비			.

※수업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선불이며, 중도 환불 절대 불가하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참여 시 도서관 홍보에 사용될 사진에 대한 촬영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